

부산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새동지 마련

사하 괴정동 보훈회관으로 장소 이전

부산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법인)가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하사암무료급식소를 확장·이전했다.

7월 10일 개소식을 가진 사하불교연합회는 넓고 쾌적해진 공간과 오픈주방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자비행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하지역을 대표하는 스님 및 지역인사들을 포함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앞날을 축하하기도 했다.

새로 이전한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264㎡의 면적으로 사하 괴정동 보훈회관에 새 동지를 틀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설립된 이곳은 10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소규모 도서관이 구비돼 있어 사하지역 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보시행사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서 회장 법인 스님은 “가깝게는 용두산공원, 멀리까지는 동



회장 법인 스님과 내빈들이 사하사암무료급식소 개소를 축하하며 떡 컷팅식을 가졌다.

래까지 소외된 지역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고자 노력해왔다. 사하구에 계시는 스님과 신도님들의 열력이 부처님께 닿아 오늘 이렇게 확장 개원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법인 스님은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편협한 기준으로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다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와 같은 사람

하구 지역 내 사찰들을 치하했다. 조경훈 국회의원과 “불교의 가르침 중 으뜸인 것은 바로 ‘자비’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보시행을 실천하는 사하불교연합회 스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에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새 출발을 알리는 떡 컷팅식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사하사암 무료급식소는 1996년부터 지난 19년 동안 사하구 사찰 소속 스님들이 십시일반 보시금과 살림살이를 내어 운영해온 곳으로 공양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1996년부터 사하구 스님들 운영 “봉사와 자비로 진정한 나눔 실천”

이다”라는 심정으로 급식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인사말에 대신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이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 믿는다. 이곳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사하구의 희망이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가 있어 든든하다”며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기틀을 마련한 사

고운사 사찰음식지도자과정 첫 수료식

16명 수강생 사찰 음식 전파 나설 예정



고운사가 7월 12일 사찰음식지도자과정 첫 수료식을 배출했다.

고운사(주지 호성·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 이사장)가 7월 12일 사찰음식지도자과정 첫 수료식을 가졌다. 고운사는 지난 5월 전통사찰음식의 전문지식과 사찰음식 저변확대를 위해 사찰음식지도자 과정을 개설 3개월 교육을 거친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고운사는 “수강생들은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요리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앞으로 사찰음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새로운 메뉴 개발, 기술 교육 등은 물론 사찰음식 전수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나아가서는 사찰음식전문점 개설 컨설팅을 담당하는 리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수료생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합격자

에 한해 조계종16교구 고운사 및 사단법인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가 발행하는 사찰음식 교육강사 자격증과 수료증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불교16교구 고운사는 부설 사찰음식문화연구소(사)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로 확대 개편, 현재 스님 대학교수 등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사)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는

부산불교연합회 2014부산연등축제 평가

2014부산연등축제 평가

2014년 부산연등축제를 회향하고 내년 연등축제를 계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7월 16일 코모도호텔에서 2014부산연등축제 평가와 회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연등축제가 세월호 참사로 대폭 축소되면서 준비했던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세월호 희생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행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부처님 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또한 2015부산연등축제를 부산지방무형문화재 등재는 물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의 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연등축제의 전통성과 축제성을 살려 새로운 불교문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창원 성주사, 범어사와 주지 임명 건 ‘갈등’

역대 주지 원정 스님 안국선원 관련 질의서 제출

경남 창원 중심 사찰인 성주사의 새 주지 임명 건으로 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와 성주사 신도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대 주지 원정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에 안국선원사찰 등록 절차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정 스님은 7월 17일 인사통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성주사 신도들이 새주지 무관 스님의 성주사 진임을 통제하고 있다.

원정 스님은 “질의서는 수불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서울과 부산의 재단법인 조계종 안국선원이 종헌 중법에 따른 조계종 선원으로 사찰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성주사, 원일 前 주지 고소 신도회 새 주지 진임 막아 범어사 ‘주지 임명 절차 적법’

22년간 주지 소임을 맡았던 원정 스님은 범어사 주지 선거에 낙마한 이후 주지에 재선임 되지 못했고 이후 사제인 원일 스님이 교구본사 범어사의 추천으로 주지에 임명됐지만 1년 반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조계종은 범어사의 추천을 받아 무관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지만 무관 스님은 현재 성주사 신도회의 반대로 경내 진임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소한 상태다. 성주사 신도회 측은 원일 스님의 인수인계 과정 중 옳지 않은 행정 운영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범어사가 무리하게 새 주지 임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원정 스님은 동산문도 직계 상속 모임을 결성하고 10여명 스님의 서명을 받아 질의서와 함께 총무원에 제출했다. 원정 스님은 “본사 화합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염려해 동산 대중사 직계 상속들이 모여 금정총림의 질서와 문중의 화합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며 취지를 전했다.

성주사 측은 “前주지 원일 스님의 횡령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범어사측에서 성급하게 무관 스님을 주지로 추대했다. 범어사의 일방적인 주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임 주지는 원일 스님의 부도덕한 행정을 밝히고 나서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무관 스님은 범어사 주지인 수불 스님과 같은 문중이다. 사찰을 소유하기 위해 품신을 하고 발령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 갈등은 성주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품신을 합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갈등은 성주사 안에서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며 성주사 진임을 다시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범어사 측은 “적법한 절차로 무관 스님이 주지로 임명됐다. 신도들이 주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또한 원일스님의 횡령의혹은 감사국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前주지인 원일 스님은 7월 18일 조계사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원일 스님은 “공금을 횡령한 적도 없으며, 잠적하거나 국외로 도망간 적도 없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원 감사국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前신도회장과 몇몇 신도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스님들이 주지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 온갖 모함 등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화쟁”

화쟁문화포럼 제5회 대강연회 개최

(사)화쟁문화포럼(회장 류진수, 이사장 법산)이 원효의 화쟁사상으로 국민화합을 발원하는 제5회 대강연회를 7월 15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화쟁문화포럼은 2009년부터 국내 유명인사를 초청해 화쟁 사상 중심으로 강연을 개최 국민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평화의 장을 마련해왔다.




화쟁문화포럼에서 한화갑 총재가 강연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진정한 화쟁 사상은 대립된 상태 그대로를 긍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발전

이 있다. 우리가 화합해야 국가가 분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화쟁사상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의 강연자로 나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위기 극복과 국민화합’이라는 주제로 “시간을 거슬러 보면 우리는 지역과 계층간의 대립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민화합으로 우리만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잘 보존해왔다. 대립 속에 하나 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화합의 중요성을 당부하며 사부대중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대한불교 종정단. 고승단. 종단. 대중사. 자문단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대한불교 종단총연합 협의회.

제 6회 7월 29일 각료 임명식 & 대중사 품수 수여식

오후 3시 정각 / 하림각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62-3

각종단 종정큰스님, 총무원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필요합니다.

승려들의 수행 풍토 쇄신을 도모하여 불교의 질적 성장과 정화와 개혁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1080명의 숨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각료 임명**과

※ 350여 군소종단이 하나되어 **합동 금강계단 품수**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자하니 뜻이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장관급 각료 명단

불원 보각 해승 대봉 도명 해선 대풍 석각 지암 도암 혜월 현담 경오 영각 남륜 청운 돈조 보현 대경 도안 법상 도월 대연 혜운 송현 진관 지우 종선 도암2 능허 태봉 청산 성군 정오 법현 지암2 향운 보성 법성 송운 도연 경현 동월 법인 법광 제성 법지 송몽 법주 도일 구암 심오 해광 석담 원광 청광 해상 해관 도경 성보 보명 현덕 보운 무량수 혜정 법조 해공 성범 지연 다정 구암 혜일 석장원 보현2 범용 지훈 법상2 각운 정음 선명 혜륜 혜진 이한규홍보실장 금조 목성 만근 외 500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합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법왕청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02)733-5671, H·P 011-229-6061